미국내 '불교스타일' 결혼 '각광'

'뉴욕 타임스' 등 외신, '마음챙김 결혼'에 주목

미국에 거세게 불던 '명상 바람'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또 다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마음챙김 결혼(Mindfulness Wedding)'이 바로 그 주역이다.

'마음챙김 결혼'이란 단순히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챙긴다는 뜻 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결혼이다. 결혼식에 사용되는 모든 사치품을 없애고, 음식은 채식으로 구성하며, 재고로 남은 원단을 사용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 결혼식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수시로 변하는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은 필수다. 인생 한번뿐인 결혼의 의미를 더욱 가중해주는 것.

'뉴욕 타임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앞다퉈 마음챙김 결혼에 대해 보도했다. 특히 '뉴욕 타임스'는 10월 18일, 미국의 마음챙김 결혼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행으로 번져 '마음챙김 결혼 컨설턴트'까지 생겼다고 전했다.

또한 '데일리 메일'은 실제 마음챙김 결혼식을 한 부부를 자세히 소개하며 이 결혼식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하기도 했다.

'데일리 메일'이 조사한 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혼식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정당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라 △가능한 구매하지 말고 빌려라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지역에서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사용하라 △얻어진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라 △음식은 주로 채식으로 꾸려라 △결혼식을 하며 일어나는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리라 등의 내용을 담는다. 또한 결혼에 필요한 세부적 지표를 나눠 설명하기도 했다.

결혼식 사용 제품 낭비 최소화
시시때때 마음 변화 바라볼 것
불살생·평화 중시 불교정신 닮아



태 도	•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하라. •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드레스	• 드레스를 만드는데는 많은 자원이 낭비된다. • 옷을 만들고 남은 원단 자투리를 활용해 만들어라. •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지 말고 빌려라.
꽃	• 생화를 사용하게 되면 꽃에는 수 많은 화학용품이 사용된다. • 꽃을 들고 걷는 대신 지역의 동물들과 함께 걸어보라. • 식이 끝나면 동물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악세사리	• 최소화하라. • 악세사리에 사용된 보석이 정당하게 채굴된 것인지 확인하라. • 보석이 채굴된 지역이 분쟁이 없는 지역인지 확인하라.
기 타	• 행진을 할 때 뿌리는 색종이 조각은 모두 낭비된다. • 나비 모양의 펀치 등을 활용해 직접 만들어라. 그리고 다음에 결혼하는 사람에게 전해줘라.

물질적인 것을 배제하고, 내 마음자리를 바라보는 '마음챙김 결혼'이 미국 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사진출처=데일리메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군부와 불교계는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시줏돈을 요구하는 것을 금했으며, 사찰에서는 염주 등 불교 용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지침은 사찰 재정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동남아 국가의 중교 상업화에 대한 비난에 대응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태국불교연맹 승가 최고위원회는 스님들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스님들의 생활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겪을 대중으로부터의 비판을 막기 위함이다.

승가 최고위원회 소속 프롬몰리 스님은 "이 규율은 승가 내에 이미 존재했지만 승려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엄격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인들은 사찰에 시주를 하면 선업을 쌓는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찰과 스님들이 이를 악용해 부를 축적했다.

이번 개혁을 반긴다는 프롬몰리 스님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고 국민들의 말을 경청하며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믿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태국 북동부의 한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불교 규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서로 감시할 것을 명령했다. 사찰 내부에는 "규율을 지키지 않는 승려들을 서로 돌보고 독려해주세요"라는 표시판도 내걸었다.

태국 군부는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태국 불교를 개혁하려고 노력했다. 군부는 경찰 출신의 포폰 프라사네그를 국립 불교 사무소장으로 임명하고, 한 사찰을 국영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경찰은 자금횡령 사건에 연루된 5명의 수도원장을 비롯, 35개 사찰과 29명의 승려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5명의 수도원장은 정경유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태국 정부는 지난 해 불교계에 53억 바트(미화 약 1억 6천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46억 바트는 태국 전역 사찰과 승려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됐다.

불교학자인 솜릿 루에차이는 "승가들이 개혁 및 쇄신활동을 펼치는 이유는 그들의 정통성을 정당화 하고 승가를 컨트롤 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승가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시키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형 객원기자

이 미국에 유행처럼 번지는 마음챙김 결혼이다. 부처님의 불살생, 평화의 가르침과 닿아있다. 여기에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마음속의 수많은 변화를 바라보니 선의 영역과도 맞닿았다고 할 수 있다. 인생에 어쩌면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결혼식, 이렇게 진행해보면 더 의미있고 기억에 오래토록 소중한 자산으로 남지 않을까.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태국 불교 개혁·쇄신 활동 박차

'시줏돈 요구 및 SNS 활동 금지'…재정 투명성 기대

태국 군사정부와 불교계 압력으로 태국 스님들이 스캔들로 얼룩진 태국 불교를 쇄신하기 위해 새로운 개혁에 돌입했다.

인구 90% 이상이 불교신자인 태국 국민들은 최근에 겪은 태국에서 가장 큰 사찰 스님들의 성추문과 돈 세탁 의혹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태국 군부와 불교계는 이번 스캔들로 태국의 인기 관광 명소인 수 천 개의 사찰에 대한 엄격한 감사를 지시했다. 또한 9월부터 원로 스님들은 태국의 30만 이상의 스님들과 4만여 사원을 위해 더 강력한 규율을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태국 군사정부와 불교계 압력으로 태국 스님들이 스캔들로 얼룩진 태국 불교를 쇄신하기 위해 새로운 개혁에 돌입했다. 태국 군부와 불교계는 이번 스캔들로 태국의 인기 관광 명소인 수 천 개의 사찰에 대한 엄격한 감사를 지시했다. 출처=방콕포스트

푸미폰 태국 국왕 불교 장례, 관광객에 개방

장례식 조직위, 11월 2~30일 일반에 개방 결정

불교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식으로 치러져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푸미폰 아둔야뎃 전 태국 국왕의 다비식 장소가 일반에 공개된다.

'투데이온라인'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푸미폰 국왕 장례식 조직위원회는 방콕 왕국 인근 사남 루엉 광장에 설치된 푸미폰 국왕 장례식장을 국민 및 관광객들에게 개방한다.

태국은 전체 인구의 95%가 불자인 불교국가다. 하지만 종교와 문화 속에 힌두교 및 자연 종교 의식이 깊게 뿌리내려 있다.

국왕을 대서사시 '라마야나'의 주인공인 '라마'라는 이름으로 칭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례식장은 라마야나 속 신들의 세계를 웅장하고 신비롭게 표현했다. 다비식 중앙에 수미산(須彌山)을 형상화한 50m 높이 건물을 중심으로 8개의 큰 산과 바다 모형이 둘러싸고 있다.

조직위는 개방 기간 중 오전 8시~오후 5시에는 장례식장에 음악을 틀고, 오후 6~10시에는 각종 공연을 진행하는 등 하나의 축제로 승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말에는 크메르 왕국에서 전해진 전통 가면극 '콘'(Khon) 공연도 열린다.

방문객들은 사남 루엉 광장 중앙에 설치된 장례식장 외에도 주변에 설치된 전통 양식의 건물에서 펼쳐지는 푸미폰 국왕 관련 전시회도 둘러볼 수 있다. 개방 시간은 오전 7시~오후10시.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푸미콘 국왕의 장례식은 불교 전통을 유지하되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장엄하면서도 화려하게 치러져 대중의 이목의 쏠린 바 있다. 사진출처=680news

벨린다 칼라일, 불교로 세계 강타

10년 만에 돌아온 월드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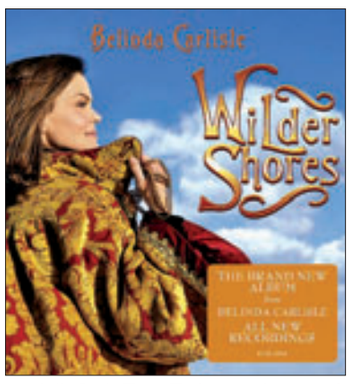
월드스타 가수 벨린다 칼라일이 불교와 함께 10년 만에 컴백했다.

80년대 이후 줄곧 세계적 사랑을 받아온 록밴드 '고고스(Go-Go's)'의 리드 보컬 벨린다 칼라일이 새 앨범 'Wilder Shores'를 발표한 가운데, 이 앨범이 불교를 테마로 만들어져 더욱 화제다.

이번 앨범은 10년 만에 발표됐으며 이전에 칼라일은 록·뉴웨이브 장르의 음악을 해왔다.

영국 언론 '레지스터가드'는 칼라일의 새 앨범을 "팝송서 불교의 정서를 느낄 수 있어 새롭다. 이 정서에 낯설더라도 익숙한 팝 멜로디기 때문에 듣는데 무리가 없다. 칼라일의 멋진 목소리와 가창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양질의 앨범"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레지스터가드'는 칼라일을 비틀스의 조지 해리슨이나 80년대 팝을 풍미한 보이조지를 잇는 새로운 불교-팝 가수로 명명하기도 했다. 조지 해리슨은 동양의 명상세계를 접목해



80년대 유명 록 그룹 '고고스(Go-Go's)'의 리드 보컬 벨린다 칼라일의 새 앨범 'Wilder Shores'는 불교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비틀스 선율에 담아낸 바 있다. 보이조지 역시 불교에 귀의한 것으로 유명하다.

칼라일의 히트곡이자 이번 앨범에 어쿠스틱 버전으로 실린 'Heaven Is a Place on Earth(천국은 지상에 있다)'는 기독교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노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교노래이자 성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음원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벨린다 칼라일은 미국의 가수로 81년 고고스로 정식 데뷔해 끊임없는 음반활동을 해왔다.

1991년부터 칼라일은 음반활동 수익금을 기부하며 자선활동을 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공식적으로 채식주의를 선언했다. 박진형 기자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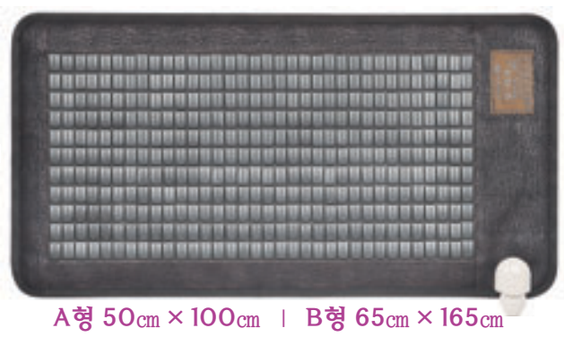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100㎝ | B형 65㎝×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면발광 LED 인등



수법 당장 업일체
미단 닫집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